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다보탑

신 말자

저기!

거기가 어딘지
 온 몸으로 가르키고 있는
 국보 20호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먼 발치부터 더듬 더듬
 몇백 년 발치부터 더듬더듬
 정강이 살이 헐어, 헐어도
 닿지 못하고
 언제나 묵언수행으로
 서서
 너 혼자 깨달으라고
 마음의 뒤축을 높이며
 거꾸러지기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발길 앞에 손을 뻗으며
 애오라지
 서울에서 경주까지 뻗으며 뻗으며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 내 팔이 되어
 불손한 마음들을 씩씩 잘라내며 다시 뻗지만
 아직도 다 읽어 내지 못하는 무지의 이 독법을
 툭툭 털어내며
 이제는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터벅터벅 그 서늘한 위엄 앞으로 다가가는데...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신말자 시인은... 1943년 경남 거창 출생.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오래 말하는 사이〉 〈열애〉 등.

화쟁위 · 종회의원 “강정마을에 평화를”

제주국제평화회의 참석 해군기지 백지화 성명 낭독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제주국제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제주 국제평화회의는 강정마을회, 주제포럼C,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법대위,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주평화외선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화쟁위와 중앙종회 지흥 지원 법안 적천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2월 24~25일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스님들은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주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를 주제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평화운동가와 전문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국내외 평화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강정 마을에 생명평화의 꽃을 피우게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경찰과 해군은 구럼비 해변에 펜스를 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외면하면 한반도 구성원들이 꿈꾸는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

이어 지흥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스님들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동체대비행을 다하지 못한 불교계의 오늘을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과 고통의 명에 벗겨줄 주체는 주민도, 활동가도 아니고 바로 정부다”라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방적 공사강행,

‘Gangjeong for the Life & Peace Village, Jeju for the World Peace Island’



지흥 스님이 강정 마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법처리 등 극단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반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깨는 행위이다. 해군기지 백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평화회의는 문정현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평화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스님들은 평화회의의 참석 후 강정마을로

이동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25일 아침 해군기지 건설 현장인 구럼비 해변을 방문했다.

이에 앞선 17일, 화쟁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후),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이은봉, 최연, 우희중)은 ‘쌍용차 희생자를 위한 천도제 및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법회’를 서울시청 앞 대안문에서 봉행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yunbul.com

종단협, 유사단체 난립 적극 대처

201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유사종단 및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매년 부처님오신날 실시하던 기원법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종단협은 2월 22일 AW센터에서 ‘제48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안건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종단협은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올해, 유사명칭 단체가 난립할 경우 불교계의 위상 실추가 우려된다며 관련 규정을 정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는 종단협에 가입하지 않은 불교계 군소종단들이 회원종단의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단체를 결성해 회원종단과 본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종단과 단체를 지칭한다.

정치와 종교의 바른 길을 모색한다

만해축전 심포지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오현)는 ‘정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를 주제로 3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2만해축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단체를 결성해 회원종단과 본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종단과 단체를 지칭한다.

이날 종단협은 한국불교종정협의회,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등을 유사단체로 제시했다. 또, 종단협 회원사 간부가 유사단체 및 기구에서 임원활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회원 가입을 신청한 정도종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했다.

종단협은 1980년대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대통령을 초청해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 현 정부의 불교평화가 계속되면서 행사를 보류했으나, 올해에도 기원법회 봉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기범 기자

“스님 교화 만대에 빛날 것”

지관스님 49재 봉행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49재가 2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본불교 관계자들과 종단 대표, 순학규 前 통합민주당 대표,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 홍준표 前 새누리당 대표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49재가 끝난 후에는 불자들이 지관 스님의 사리를 진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관 스님은 1월 2일 서울 정릉동 경국사에서 지방인 폐질환으로 인해 “무상한 육신으로 연꽃을 사바에 피우고 헛깨비 빈 몸으로 법신을 적멸에 드러낸다”는 사세계(辭世偈)를 남기고 법랍 66년, 세수 80세로 입적했다.

주성원 기자



“부처님 가피를 세계로!” 단일사찰로는 최초로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가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발족했다. 조계사는 불자들이 대웅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대학생 해외봉사단 ‘가피’ 발대식을 2월 22일 개최했다. ‘가피’는 1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조계사 제1기 대학생 해외봉사단으로 조계종 교육조직국장 지건 스님(사진 왼쪽)과 2월22~28일 6일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주성원 기자

2012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e & Industry Exhibition 2012

일시_ 2012.03.15(금) ~ 03.18(일) 3일간

장소_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2전시장

주 최 |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Expert (주)엑스퍼트**

후 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불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태고총림선암사

참가문의 |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사무국 062-383-6322